

이신의 일하다가 든 생각

아! 나의 에우리디케, 나의 이십 대여

글_ 이신

시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모두가 입 아프게 떠들어대는 시대에 직장인의 머덕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다 말하지만, 정작 나는 같은 책상, 같은 모니터 앞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낸다.

긴 연휴를 보내고 어김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매일 창만 들여다보던 어느 오후, 곧 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곤 잠시 감상에 빠져들었다. 만 나이로도 연 나이로도 더 이상 이십 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일순간 복잡했으나 살 떨리는 어른들의 세계에 성공 들어섰다는 사실보다는 나만은 오래도록 품어줄 것으로 생각한 천진함의 세상 역시 지체 없이 나를 쫓아냈다는 사실이 덜컥 겁이 났다.

이십 대의 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십 년 동안 떨어대던 호들갑도 없었고 무아지경의 파티도 없었다. '조용한 생일'이라는 낯선 정의에 적응이 되어갈 때쯤 이승을 한 발 앞두고 뒤를 돌아본, 그래서 에우리디케를 영영 잃게 된 오르페우스가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확신 없는 내 모습이 오르페우스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한 발만 더 디디면 30대라는 생각에 압도됐기 때문일 거다. 나는 서른까지 왔는데 이십 대의 나도 부지런히 나를 쫓아 잘 오고 있는지 자주 의심이 들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붙잡아 보고자 회신하던 메일을 잠깐 멈추고 수첩을 폈다. 그런데 웬걸. 마치 저승으로 떨어진 에우리디케처럼 내 이십 대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필사 마음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우주의 먼지가 되어

글, 손글씨_ 바다거북

“우주의 먼지가 된다”는 문장을 『살인자의 기억법』(김영하, 북복서가)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먼지가 되어 그리하여 그것조차 사라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나는 이것이 작가가 주인공 김병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자,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살인에 자부심을 느끼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던 살인자에게는 이것이 별과 같겠지만, 동시에 붕괴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과는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든 것은 김병수가 끈질기게 자신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병수는 그 자신이 만든 기억과 확신 속에서 세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믿고,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한다. 하지만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설명도 함께 무너진다. 무엇이 실재였는지, 무엇이 스스로 만들어 낸 이야기인지 경계가 흐려지고, 세계는 점점 설명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 어쩌면 그래서 ‘우주의 먼지’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등장했는지도 모른다. 그가 끝내 흩어지는 장면을 장식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된 살인자, 비난하려고 해도 비난받을 수 없

실체 없는 그리움과 흐릿한 기억만 남긴 채. 욕망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에 몰입했던 야수 같던 이십 대는 지나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에 놀람도록 영민하고 교활해진 지금의 나만 남아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매일 창을 보니, 역시나 ‘상대방이 의심하겠지만 확인할 길이 없는’ 변명들이 꽤나 영리한 방식으로 나를 방어하고 있었다.

걱정이 많아지니 만사가 조심스럽고 방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작년 포르투갈·스페인 여행 때였다.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본 수많은 사건-사고가 나에게 일어날까 봐 무서워서 인터넷을 살살이 뒤져 소매치기와 빈 차 털이를 방지하는 꿀팁을 캡처해 차곡차곡 갤러리에 집어넣었다. 심지어는 구글에 ‘해외에서 여권 분실’, ‘유럽 렌터카 파손 보상’, ‘해외 교통사고 대처’, ‘유럽 강도 사건 신고’, ‘유럽 택시 바가지 요금 방지’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의 대책을 세우느라 밤을 꼬박 지새웠고 피곤한 몸으로 관광지를 돌아다니느라 그 황홀한 광경을 제대로 눈과 마음에 담지도 못했다.

정말이지 스스로가 너무 낯설었다. 생소함과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하던 지난 여행을 돌아켜본다. 가방을 잃어버리고도 지갑과 여권, 휴대폰만 내 손에 있으면 다음 행선지로 뚜벅뚜벅 걸어가던 무모함을 다시 떠올려본다. 황무지 도로 한 가운데 내려지고도 인터넷만 터지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낙천적인 태도를 되새겨 본다. 빈손으로 탄 11시간 여정의 기차에서 음식을 동냥하고 입맛에도 맞지 않는 음식을 입에 욱여넣으며 웃음이 터지던 순간을 다시 불러본다. 아무리 회상하고 되새기고 불러봐도 내 이십 대는 이미 지나간 과거, 지나간 시간은 고요하다.

미련을 갖는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내가 진정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이십 대라는 시간인가? 아니다. 앞으로

는 먼지가 되어.

이 장면은 그의 마지막 냉소이자 동시에 공포로도 읽힌다. 김병수가 말하는 ‘우주의 먼지’라는 표현이 어딘가 비겁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책임마저 흐리게 만드는 말. 마치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마지막에 내뱉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김병수가 끝내 저항할 수 없었던 운명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세계, 자신에게 특별함을 주던 그 세계를 지켜내지 못했다. 김병수가 마지막에 마주한 것은 어쩌면 그 사실, 결국 자신도 평범한 먼지 한 톨이라는 사실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오래도록 이 장면에서 멈춰 있었다. 그것이 별인지 구원인지, 냉소인지 공포인지를 따지던 나는,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질문 앞에 서 있었다. 김병수가 상상한 먼지와 내가 상상하는 먼지는 같은 먼지일까. 김병수의 먼지는 흩어지는 먼지였다. 경계가 지워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기억과 함께 자신도 무로 녹아드는 것. 그러나 나에게 먼지는 흩어진 뒤에도 어딘가에 반드시 내려앉는 무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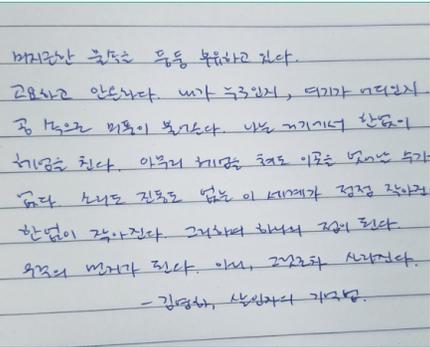
그래서 나에게 내가 우주의 먼지라는 사실은 나를 가볍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만든다. 먼지는 작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내려앉는다. 바닥에, 책상 위에, 창틀 위에. 닦고 쓰는 손을 피해 오랫동안 한 공간에 내려앉은 먼지는 흔적을 남긴다. 세월의 더께를 만든다. 그 더께 속에는 그것이 쌓이는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들의 모양이 담겨 있다.

걸어가야 할 발걸음을 붙잡는 건, 지나버린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배려할 것이라는, 이 세계는 안전하다는 천진한 감각이었던 것 같다. 상처 주지 않을 세상에 대한 믿음, 어쩌면 그게 생체기 가득한 서른을 맞이한 내가 영원히 놓쳐버린 에우리디케일지도 모른다.

‘서른’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듣다 보면 서른이라는 나이는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마치 그 나이를 통과하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서른을 이야기한다. 서른, 기대했던 만큼 세상이 너그럽지 않았다는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버린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붙여 놓은 이름 같은 것. 배신감만 안겨주는 세상과 끌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어느새 식어버린 체념을 한데 묶어 놓은 그럴듯한 변명 같은 것.

서른은 어떠한 ‘때’이다. 김광석이 노래한 <서른 즈음>에 대해 서른 살을 맞이한 이들의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까닭도, 그 노래가 ‘서른’이 아니라 ‘서른 즈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일 거다. 서른 즈음 살아보니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때. 뒤돌아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비로소 걸음이 일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꽤 안정적으로 삶의 제반을 잘 꾸릴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여전히 훌륭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 나의 에우리디케, 나의 이십 대여. 너를 잃은 것이 아니라 너를 지나왔음을 이제는 안다. 너를 지나왔기에 지금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메일함을 연다. 능수능란한 방어의 언어를 구사해낸다. 기술이 아무리 세상을 바꿔도 결국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몫이므로.🐢



자주 앉던 의자는 조금씩 패이고, 그 틈 사이에 먼지가 모양을 따라 스며든다. 그렇게 주인의 모양대로 둥글어진 의자는 편안해지고, 날카로운 모서리로 허벅지를 상처 내지도 않는다. 먼지는 태풍처럼 거대한 흔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용히 자리를, 모양을 바꾼다.

먼지는 냉소도 공포도 아니다. 다만 조용히 쌓여가는 어떤 것이다. 누군가의 시간 위에, 어떤 공간의 표면 위에, 오래된 물건의 모서리 위에, 조금씩 더해지며 날카로운 것을 둥글게 만들고, 오래된 자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무게다. 김병수의 마지막처럼 희미해짐을 느끼는 순간에 내가 떠올리고 싶은 것은 냉소나 공포가 아니다. 먼지가 가지는 작은 무게, 어쩌면 먼지 한 톨에게 그것이면 충분한 그 무게다.🐢

단어의 만남

청소부와 어린이 손님

글, 사진_ 하지



▲다 함께 강화성당에서

아이들의 긴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있었다. 올해 12살과 9살이 된 아들들은 방학 내내 학원과 집을 오가고 닌텐도와 휴대폰 게임을 번갈아 하며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 2월은 설날이 있었고 원래도 짧은 달이라 학원비가 아까워 근교 여행도 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자주 어디론가 떠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자란 만큼 사교육비가 더 들었고 그만큼 여행비를 아끼며(?) 가게 지출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ند에 이대로 방학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학부모는 나쁜만이 아니었는지, 마음 맞는 엄마끼리 모여 아이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모임 멤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너미(기혼 양육자 페미니즘 모임) 멤버인데, 대부분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지난번 모임은 경주였기 때문에 이번은 서쪽 끝 강화도로 정했다. 강화도라니, 처음엔 어디 붙어있는 지역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숙소에서 개성 땅이 보일 정도로 최북단 지역이었다.

포항에서 다섯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하는 곳. 아침 일찍 나섰지만,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 2년여 만에 만난 아이들은 처음엔 서로를 낯설어했다. 왜 아니겠는가, 어른들도 어색함을 푸는 건 어려운 일이다. 강화도에 잡은 숙소는 이제껏 본 그 어떤 숙소보다도 쾌적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복층 구조,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서해와 흐릿하게 보이는 북한 땅, 바비큐를 할 수 있는 전기 그릴, 불멍을 할 수 있는 마당, 포근한 침대와 침구까지. 아이들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스마트폰 금지 규칙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불평이 나왔지만, 금세 아이들은 복층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집 전체를 이용해 숨바꼭질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며 즐거워했다.

어떤 어른은 아이들이 먹기 좋게 간식을 준비했고, 어떤 어른은 수영 후 몸이 젖은 아이들을 위해 수건을 준비했고, 어떤 어른은 놀임감을 준비해서 소외된 어린이가 없도록 신경 썼고, 어떤 어른은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물건을 치워두고 청소를 했다. 열 명의 어린이와 다섯 명의 어른이 있는 공간은 수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어지럽혀져서 청소는 모두가 수시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체력이 줄지 않았고, 어른들은 아

이들을 재우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파자마 파티’를 손쉽게 해줄 수 없기에, 어른들은 그동안의 부채감을 덜려는 듯 아이들이 실컷 놀게 두었다. 새벽 1시가 되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그제야 어른들은 소곤소곤 수다를 떨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그중 어떤 어른이 말했다.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라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놀기’를 바란다. 그리고 놀이 환경은 안전한 공간, 깨끗한 공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우정의 공간이길 바란다. 방학 내내 학원과 집 말고는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만나 제대로 놀 공간이 없다. 부모들은 ‘소음 항의’ 걱정에 더 이상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키즈 카페’나 ‘파티룸’을 대어해야만 실컷 놀릴 수 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부모들은 방학 내내 심심했을 아이들이 실컷 놀게 했으니, 죄책감을 조금씩 덜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이들 역시 양질의 추억과 경험의 자양분을 얻었다. 1박 2일 잘 놀기 위해 불편한 것들을 치워놓는 ‘청소부’가 된 엄마들과 돈과 시간 덕분에 ‘잘’ 놀게 된 ‘어린이 손님’들을 생각하니 씁쓸해졌다. 엄마들은 불안하다. 사교육을 많이 시켜도, 많이 시키지 않아도. 어쩌면 부모는 평생 불안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만, 완벽에 대한 통제는 우리가 모두 조금씩 놓아보면 어떨까. 청소부가 되어 아이들 옆의 불청객함과 부적절함을 늘 쓰고 닦느라,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부’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불안함(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을 제거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내일이면 또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이들은 당분간 학교와 학원과 집을 헛바퀴처럼 오갈 것이다. 나 또한 그 헛바퀴를 돌리고 있음에 서글퍼진다. 요즘엔 하고 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왜 뛰어놀게 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하기 쉽다. 사회가 과민해져 있는 탓에 어린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부모는 불안함을 조금 줄이고 사회는 어린이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 인내한다면 아이들이 될 공간을 돈 내고 찾게 되진 않을 것이다.🐢

-
‘단어의 만남’은 기자들이 추천으로 뽑은 단어 하나와 이 코너를 맡은 기자가 선정한 단어 하나를 연결해서 쓰는 에세이입니다.

이 달에 내가 읽은 책

『내 주머니는 맑고 강풍』(최진영, 펀드)
친한 친구가 읽으며 내가 떠올랐다고 해서 읽기 시작한 책. 글쓰기와 야구를 사랑하는 삶(육적어떤 무언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가끔 그 사람이 너무 커서 상처받아도 옆에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긍정하게 된다. / 여름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이슬아, 이야기장수)
책은 비법 양념들로 가득해서 레시피를 공개해도 따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맛집 사장님의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마침, 연봉 협상이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권법을 실천에 써보았다. (효과가 있었다!) 형식 흉내를 넘어 ‘이메일로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체화시킨다면 정말 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 / 여름

『가장 느린 정의』(리아 락슈미 피엠펙스나-사마라신하, 오월의봄)
작가는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 중심의 시선을 비판하고 ‘돌봄’을 연민이나 의무가 아닌 해방과 운동으로 이야기한다. 장애가 있는 유색인 퀴어 팬들의 생존과 연대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준다. / 하지

『어차피 우린 죽고 이만 거 다 의미 없었지만』(사치 코울, 문학과 지성사)
여성으로, 유색 인종으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추하다고 정의된 정체성으로... 현명받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타인의 존재에 대한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예누리 없이 골려주는 사치 코울의 입담 한마당. 만원 지하철에서 당신을 웃거나 울게 만들 책! / 이신

책방지기가 주목하는 이 달의 독립출판물

『별뿔 아래서 눈을 감았다』(안수현)
슬픈 뉴스와 정신을 온통 빼앗아가는 소설 미디어를 오가다 겨우 핸드폰을 내려놓는다. 혹사당한 눈과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형산강으로 나간다. 산책로에서 나는 하얗게 부서지며 흔들리는 은사시나무에 매번 눈길을 빼앗기고, 종가시나무 숲에 은밀하게 상주 중인 때까지를 발견하고 미소짓는다. 2년 전에 찾아갔던 대구 금호강변의 팔현습지는 내가 형산강을 걷는 동안에도 함께있다. 존재의 원리가 자본주의를 비껴난 것들 앞에 설 때 느끼는 온전히 살아있는 느낌. 내가 형산강과 팔현습지에서 발견하는 것들의 뿌리이다. 이 책은 팔현습지에 머물렀던 이의 기록이고 나는 모처럼 깊게 숨을 쉬는 느낌이다.

달팽이책방 독서 모임

• **외국소설읽기모임 <에세이따라읽기>** 매월 첫째 화요일 오후 7:30

• **이론서공부모임 <이런이론>** 비정기 화요일 오후 7:30

• **세계사공부모임 <근력>**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영어원서낭독모임 <영자>**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페미니즘글쓰기모임 <불굴불굴>**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7:00

• **그림책모임 <달뿔>** 격주 일요일 오후 4:00

* 자세한 안내는 QR코드 참조

* 참여 문의: 카카오톡 ‘달팽이책방’(플러스친구)

